

# Style 1 조선일보

MARCH 2022  
vol.234



TOD'S  
MADE IN ITALY



문의. 02 3480 0104



# DIOR

GEM DIOR COLLECTION  
Pink gold, diamonds and ornamental st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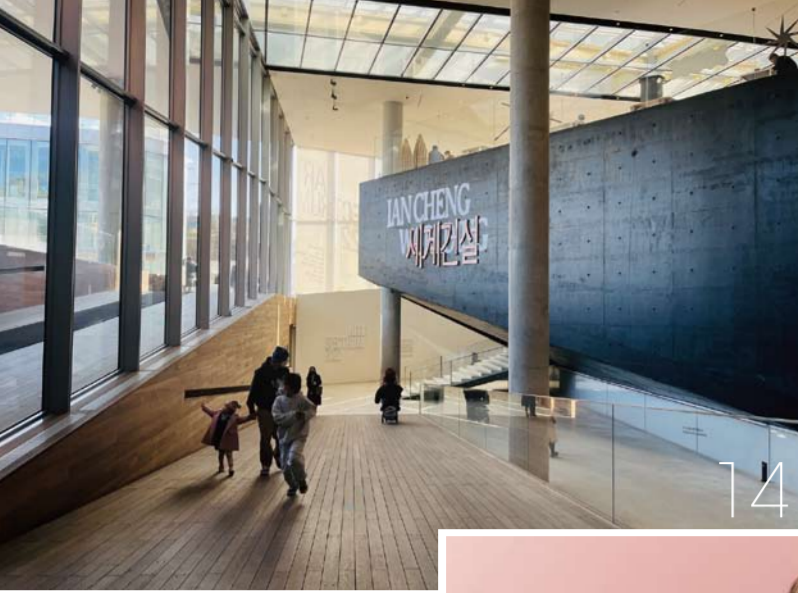
FENDI.COM



# FENDI

ROMA





14 16

**Style** 조선일보

MARCH 2022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의 2022 S/S 컬렉션은 캐주얼한 시티 라이프 감성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이국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표지 속 제품은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사파리 원피스와 모던한 T 타임리스(T Timeless) 체인 백으로, 토즈의 최상급 소재와 장인 정신을 드러내는 대표 룩이다. 문의 02-3438-600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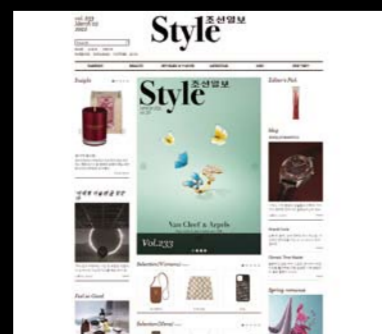


10

- 14 **트랜스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데 현대미술** 언젠가부터 동시대 미술은 다루는 공간에 어떤 느낌을 건 그치지 새로운 게 없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심미적, 지적 수준이나 감동과는 별개의 문제다(아름다운 완성도를 품은 작품은 많다). 그러나 자주 접하다 보면 뇌리를 때리는 '창신함'은 별로 찾기 힘들고, 뭔가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 같은 절박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 새로움은 그에 걸맞은 독특한 조형 수단이나 표현 수단, 개념을 찾아야 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찌 그리 쉬이 찾아지겠는가. 그래서 동시대의 새 물결을 예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첨단 기술'은 매력적인 도구임에 틀림없다. 밀도 높은 '게임 인류' 유전자를 가진 예술가가 인공지능(AI)을 만났을 때 잉태된 결과물이 몹시 흥미로운 이유다. 리움미술관의 전시 작가 이란 첵(An Cheng)이 제안하는 '새로운 예술'을 만나 보자.
- 16 **EXHIBITION IN FOCUS** 자명한 미술비평가 존 바카는 사진이 '진실'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그 진실이란 사진에 실재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이나 가짜에 부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지를 밝혀주는 법인데, 이런 진실의 옷이 지닌 성격과 그것이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예술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출제되어 열리고 있다. 사진계 가장의 면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레아터, 어윈 율리프 등의 전시가 요즘 큰 인기와 관심을 누렸는데, 저마다 다른 결로 올 상반기를 수놓고 있는 또 다른 전시 콘텐트를 소개한다.
- 18 **PURE GOLD** 따뜻하고 온화한 광채로 일상의 순간을 밝혀주는 순수한 옐로 골드 주얼리 컬렉션.
- 19 **LADY MASTERPIECE** 발레홀에서 반짝이는 별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완벽한 기술력과 미학을 겸비한 수작으로 꼽히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의 뉴 컬렉션.
- 20 **THE PORTFOLIO**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변천. 꼭 간직해야 할 2022 S/S 남성복 포트폴리오.
- 28 **BAG BOYS** 활동적인 도시 남자를 위한 뉴 백 리스트.
- 29 **EDGE OF ELEGANCE** 주얼리 매장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실루엣과 구조적인 디자인, 브랜드 헤리티지가 돋보이는 버클 디테일의 '두블르 세드 까르띠에 백'.
- 30 **SENSUAL SPRING** 이른 봄, 싱그러우면서도 농밀함을 지닌 남자의 향기.
- 31 **I SEE YOU** 세련된 실루엣과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피카부의 현대적이고 미학적인 변신.
- 32 **HEROES FOR HAIR** 건조하고 갈라지고 빠지기까지, 두피와 모발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들은 항상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환절기 건강하고 풍성한 헤어를 위한 스페셜 아이템.
- 33 **DEAR MY PET** 소중한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게 선물할 특별한 아이템.
- 34 **EDITOR'S PICK** 피로감을 줄이고, 건강함만 채워주는 아들의 뷰티템.

# Style

조선일보 Issue.234 March 2022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재판 리은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 DIOR PRESTIGE LIGHT-IN-WHITE

에밀씨옹 루미에르

한층 더 어려 보이는 탄탄한 피부  
 환하게 차오르는 눈부신 아름다움

- NEW -

2배  
투명해진 피부!

3배  
탄탄해진 피부!



# DIOR

1.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 'DIOR 에밀씨옹 루미에르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시와 라 옹블씨옹 루미에르를 함께 사용했을 시의 결과'를 비교한 실험이 결과

수입판매처: 엘비에이케이 코스메틱스(주) / 080342-9500 WWW.DIOR.COM





# 달콤한 유혹

절 만든 디자인이 감성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주얼리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벨가리 디바스 드림**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젠스로 이루어진 우아함을 선사하는 네크리스,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시트린 퀴츠, 페리도트, 투르말린을 세팅했다. 1천200원. 문의 02-2056-0171 **스티븐 웹스터 CH2 슬림라인 링** 옐로 골드에 오팔과 크리스탈 헤이즈 6.09캐럿, 다이아몬드 0.47캐럿을 세팅한 링 1천1백만원. 문의 02-2231-1592 **부셀라티 오파라 블랙 콘트라스트 링** 핑크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오팔과 로고기 마주 보는 모습의 디자인으로,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오피스를 매치했다. 7백만원. 문의 02-3440-561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 MYSTIC ENERGY

구찌 뷰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갈티 프래그런스 컬렉션은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구찌 특유의 낙천적인 에너지에서 영감을 얻었다. 남성용 우한 구찌 갈티 퍼퓸 뿌르 옴므는 산뜻한 레몬과 오렌지 플라워, 양파와 너트메그의 스파이시한 텍스처가 어우러진 우디한 이모티브 액터 향으로 강렬한 남성성을 제시한다. 여성용 우한 구찌 갈티 오 드 퍼퓸 인텐스 뿌르 퍼뎀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만도라와 리치의 푸르티한 달콤함, 일광일랑과 투베르조즈의 풍부한 향기가 어우러져 산뜻하고 관능적인 향을 내뿜으며 개성을 드러내는 여성성을 제시한다. 갈티 퍼퓸 뿌르 옴므 90ml 16만8천원, 갈티 오 드 퍼퓸 인텐스 뿌르 퍼뎀 90ml 22만1천원. 문의 080-850-0708



# INSIGHT

편안함이 없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TIMELESS LUXE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클래식한 우아함 등 토즈의 헤리티지를 가득 담은 토즈 T 타인리스 미니 솔더백을 2022 S/S 시즌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다. 핸들을 우븐으로 차려내 유니크한 감성을 추가했으며 버클 장식인 T 로고를 길게 늘려 마감해 은은하게 빛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 둘 핸들은 우븐 기법을 적용한 카프 레더로 제작해 더욱 편안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한다. 견고하고 디테일한 디자인은 물론 클래식한 느낌으로 실용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갈리는 화이트, 브라운, 그린, 블랙으로 출시된다. 2백70만원. 문의 02-3438-6008



# 대담하게, 강렬하게

고혹의 레드빛 워치 3.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저 르물트르 리베르소** 원 이리데코 스타일을 이루며 간결하고 세련된 직선과 다이얼을 둘러싼 2열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아이리넨의 모열. 회전 가능한 다이얼로 뒷면에 원하는 날짜나 이니셜, 이름 등 특별한 문구를 새겨 넣을 수 있다. 수심 30m의 생활 방수 기능을 갖췄으며, 칼리버 667로 움직인다. 7백80만원. 문의 1670-1833 **파타리 루미노스 듀얼 골드테크™** 자름 38mm의 풀리시드 골드테크 케이스와 반짝이는 유광 레드 옐로게이트 스트랩의 우아한 조합으로 선보이는 모델.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오토매틱 기계식 칼리버 P.900에서 동력을 얻으며, 인텐스 시곗바늘에는 야광 처리를 해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가독성을 발휘한다. 1천9백만원. 문의 02-6905-3394 **로저드워 밸리 에센셜**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다이얼과 총 1.65캐럿에 달하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1백 개를 배열을 비롯해 케이스 곳곳에 장식돼 우아한 기품을 드러내는 모델.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22K 핑크 골드 진동수를 정확히 반영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오토매틱 RD830 칼리버를 사용했다. 5천3백50만원. 문의 02-3479-1403 포토그래퍼 **박정용**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 GO SLEEK

바이엘로 플랫폼 물의 시대. 마늘로 블러카이 선보인 루타리는 뽀족한 앞코가 특징으로, 발목과 발을 강조하되 이상적인 날렵한 실루엣으로 매력적인 자세를 뽐낸다. 발등에 버킷모양의 크리스탈 장식을 다졌고, 은은한 윤광을 지닌 그린 사틴 소재로 제작해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스카타나 데님 팬츠 등 어디에나 매치해도 좋을 듯. 가격 미정. 문의 02-3443-2113



# 내 입술에 캔디

캔디처럼 통통 튀는 유리알 입술. (왼쪽부터 차례대로) YSL 뷰티 **캔디 글레이즈 컬러밤 #5** 핑크 **샤인스펙션** 이음에서 연출할 수 있듯 차원이 다른 광택을 선사하는 아이젤. 글로시한 발색이 특징이며, 비타민 E와 망고 잎 등 고영양 성분이 각질을 장려해 뛰어난 립케어 효과를 견뎌준다. 3.2g 4만9천원. 문의 080-835-0089 **샤넬 루주 코코 플레쉬 #60** 비트 한번의 터치로 강렬하고 선명한 컬러감을 느낄 수 있다. 미모사, 호호바, 해바라기씨 함유한 이드라부스트 콤플렉스가 장장 8시간의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3g 4만9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디올 아디트 립 글로우 #033** 코발트 핑크 부드러운 발 타인 텍스처로 립밤같이 은은하게 발색되는 것을 선호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단독으로 바르기에 좋고, 촉촉해서 립스틱을 바르기 전 프라이머처럼 사용해도 좋은 아이젤. 3.2g 4만6천원. 문의 080-342-96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 FEEL THE RARITY

하이엔드 수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베니 애호가라면 반길 만한 소식이 있다. 오코 통에서 정성 들여 숙성시킨 위스키 완액을 바탕으로 최상의 조합으로 빚어낸 발베니 30년 레어 매리주(The Balvenie 30 Years Old Rare Marriage). 실크처럼 매끄럽게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달콤함, 풍부한 꿀과 감미로운 오코 통의 목직함, 살탕에 절인 오렌지 껍질의 힛트, 그리고 마지막에 부드러운 스파이스와 달달함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한다고 자부하는 제품이다. 발베니의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C. 스투어트가 특별한 풍미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숙성되어 달콤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전통적인 아메리칸 오크 통과 유러피안 오크 통의 위스키 완액을 매링해 위스키를 완성했다고. 부드러운 연소가죽으로 만든 원통형 패키지는 증류소에서 영감을 받아 점차 얼어지는 링의 디테일을 닮았고, 화이트 골드 포일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눈부시게 빛나는

라프래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화이트 캐비아 에센스 엑스트라오디네어는 탁월한 브라이팅 효과를 선사한다. 토닝 단계 후 사용하는 에센스 로션 타입으로 독자적인 일루미네이팅 성분인 루미도스 성분이 피부 톤을 개선하고 골든 캐비아 추출물이 탁월한 피밍 효과를 발휘하며,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 피부의 빛반사 능력을 최적화해준다. 보습 효과도 상당히 수분으로 가득 찬 피부를 강화할 수 있다. 150ml 58만원. 문의 02-511-6626



1930년대 마라케시의 왕자 엘 글리우의 의뢰로 탄생한 메종 까르띠에 최초의 방수 워치 파사드 까르띠에가 리뉴얼 출시된다. 다른 방수 워치들과는 다른, 왕족의 풍유를 지켜주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까르띠에의 독특한 디자인인 스크루 다운 크라운과 크라운 커버를 갖춰야만 방수 성능을 더하는 이른바 이중 다이얼에 선명한 레드, 핑크 컬러의 옐로게이트 스트랩 버전이나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골드, 스틸 스트랩 등 다양한 버전으로 드러낸 룩이나 캐주얼한 의상에 매치할 수 있다. 이렇다온 디자인과 방수 기능을 다한 까르띠에 워치로 감각적인 스타일링과 편안한 기능까지 누리보자. 문의 1566-7277

# THE ART PIECE

미치 예술 작품을 차고 다니는 듯한 감성을 주는 작가의 칼라풀해이션 아트워크 백. 호랑이 해를 기리며 영국 브라이언틀 기안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도에가 루시 카키의 일러스트를 담은 백 1백만 원 **말바리**. 문의 02-2018-1439. 디스코 시대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렌조의 비키니 걸 그림을 섬세하게 담은 선인 미술 백 4백만원 **판다**. 문의 02-514-065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배시현**







메탈 소재  
다스크 선글라스  
60만원대 렌즈.

정교한 절삭 공법인  
CNC 절삭 기법으로  
제작해 정밀한  
퍼팅을 선사하는  
메릭스 퍼터 F303  
1백25만원 출마.

신축성이 뛰어난 화이트 스커트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신모 클럽을 휴대하기 좋은 트라너너 13.0 허프백, 25x125cm, 17만원 제이렌드버그.

기본고통(가성) 좋은 핏과 코트 볼로 사후 4년간의 품질보증을 자랑함.

코튼 벨 캅 16만원  
마크 제이렌드버그.

# for her Selection

페어웨이에서 더욱 빛을 발할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전면에 로고를  
새겨 스포티한  
매력을 지닌  
골드 이어링  
가격 미정  
미우미우.

램 스킨에 골드  
체인 장식을 더한  
헤어 스크런치  
가격 미정 샤넬.

러닝화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나이키 리액트  
에어스 투어 17만원 천원 나이키.

향형색색의 울  
뉴 O1 골프공  
1세트(12pcs)  
3만3천원 출마.

다들 하이브  
미대형 장볼링백,  
34x18cm,  
가격 미정 디올.

기능성 메쉬 소재로 제작된  
비브 고트레이너 1백25만원  
로저 비비.

몽클레르 컬렉션 02-514-0900 마크 제이렌드버그 02-3438-6144 레인메이커 070-8899-3650 미우미우 02-752-5245  
다이아나 02-4671-6262 로저 비비에 02-3438-6268 렌즈 02-514-0652 보태가 베네타 02-515-2717 혼마 02-2140-1888  
페이 비틀 02-3432-1854 사넬 080-805-9628 디올 02-3480-0104 나이키 02-511-4080 제이렌드버그 02-547-2229



PANTHÈRE  
DE  
*Cartier*





라이트 그린 코튼 버킷햇 72만원 **프라다**.



스트라이프 폴로 티셔츠 29만9천원 **말본 골프**.



스티미 자수를  
높여줄 타일라스  
가죽 브레이슬릿  
28만원 **토즈**.

# Selection

필드 위에서 진면목을 발휘할 패셔너블한 가능성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스마트 워치와 골프 GPS 스코어,  
95% 충전속도 등의 장점을  
제공하는 카네이션 컬러에  
E4.45MM 38만9천원  
태그하이퍼.



알루미늄 워터 보틀 71만5천원  
자참시.

초박형 크라운 설계로 시인성(가시성)을 시한  
GA25 맥스 드라이버 79만9천원 **말본 골프**.

정확한 거리를 파악해 클럽  
선택을 돕는 핀스터 2 프로  
30만원 **라이카 카메라**.



여덟 가지 이상의  
클럽을 캐리할 수 있는  
골프백 59만9천원  
**폴로 말프 로렌 골프**.



뛰어난 접지력을  
갖춘 투어 360 22  
보이 슈즈 28만원  
**아디다스 골프**.



오블리크 패턴을  
적용한 블루 미러 렌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디올 맨**.

선글라스 2개만 **어사이드 5000원**  
**아이티이뮤이**



심양이 최상의 성능을 지닌  
리넨 울, 실크를 조합한 베스트 가격 미정  
**브루넬로 푸치넬리**.



기능성 폴리에스테로  
제작한 오를리 팬츠  
가격 미정 **오를리**.



내재한 기능성감을  
자랑하는 블루 폴리에스테로 파우치.  
23X17cm, 1,159,000원 **프라다**.



이탈리아 베르골프볼 3만9천원 **르손네**  
레조코와 합입에 신이하는 베르골프볼 3만9천원 **르손네**



lighthearted

프라다 02-3442-1830 말본 골프 02-6905-3520 오를리 02-6048-5526  
셀티 02-3471-8948 르손네 070-8865-0951 루이 비통 02-3432-1854  
브루넬로 푸치넬리 02-3448-2931 디올 맨 02-3480-0104 링 골프 02-511-4511  
아디다스 골프 02-514-5757 라이카 카메라 02-1661-0405 자참시 02-6905-3664 태그하이퍼  
02-548-6020 토즈 02-3448-8233 폴로 말프 로렌 골프 061-720-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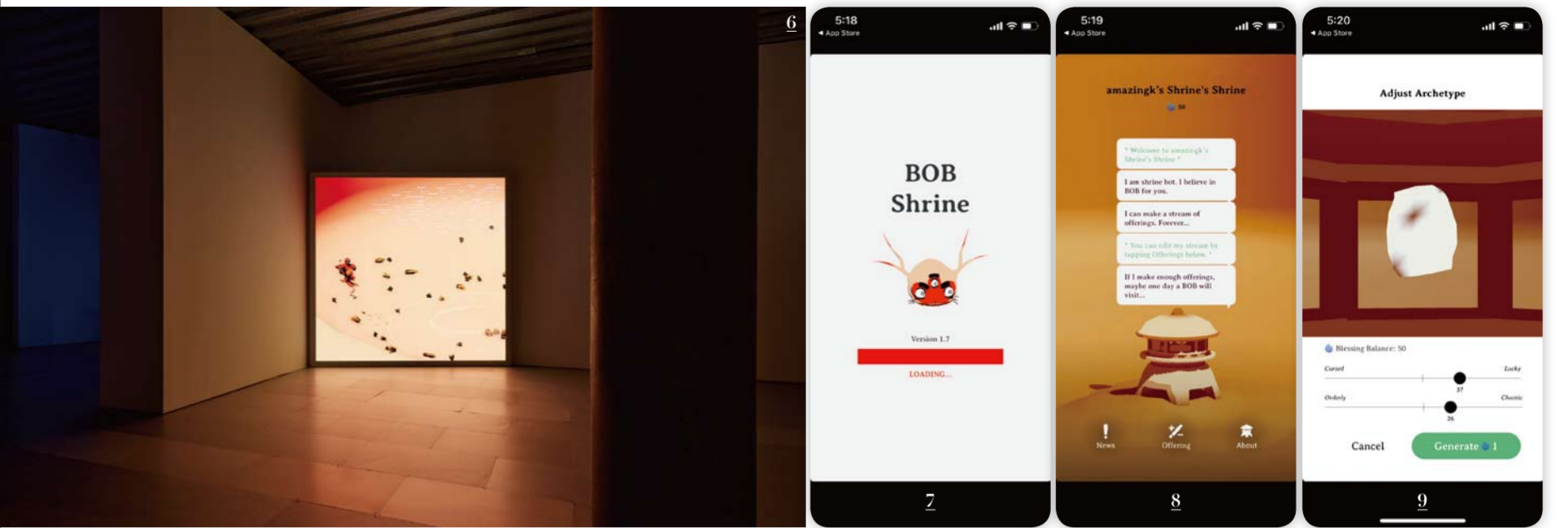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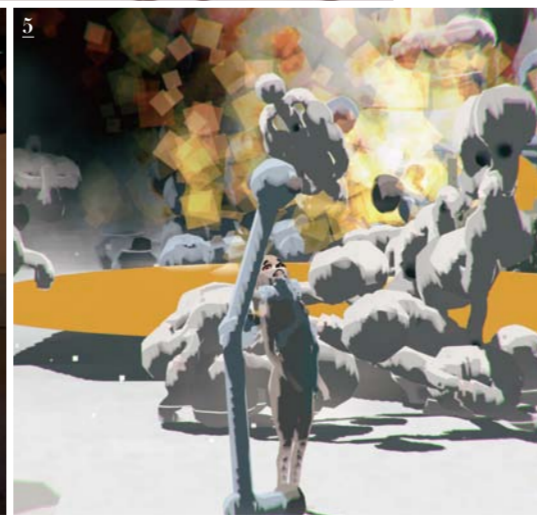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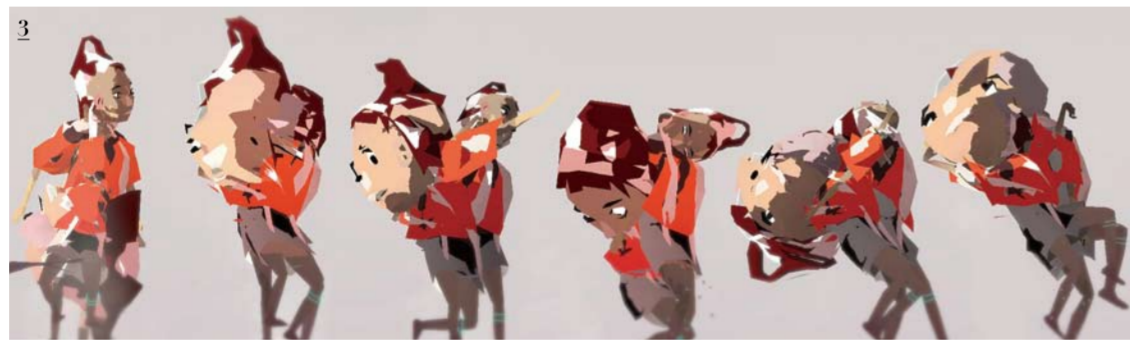
〈이안 쉑: 세계건설〉\_리움미술관



# 트랜스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려는 현대미술

언젠가부터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공간에 가면 느끼는 건 그다지 새로운 게 없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심미적, 지적 수준이나 감동과는 별개의 문제다(아름다운 완성도를 품은 작품은 많다). 그러나 자주 접하다 보면 뇌리를 때리는 참신함은 별로 찾기 힘들고, 뭔가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 같은 절박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한때 예술가에게 창작 충동이 되었던 현대성은 이제 공허한 원칙이 되어버리면서 '현대성'이 되었다는 문필가 가오성진의 진단과 맞닿는 지점일 것이다. '새로움은 그에 걸맞은 독특한 조형 수단이나 표현 수단, 개념을 찾아야 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찌 그리 쉬이 찾아지겠는가. 그래서 동시대의 새 물결을 예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칩단 기술'은 매력적인 도구임에 틀림없다. 밀도 높은 '게임 인류' 유전자를 지닌 예술가가 인공지능(AI)을 만났을 때 잉태된 결과물이 몹시 흥미로운 이유다. 리움미술관의 전시 작가 이안 쉑(Ian Cheng)이 제안하는 '새로운 예술'을 만나봤다.

언뜻 보면 그저 단편 애니메이션이나 세련된 게임 화면 같은 느낌이 든다. 다분히 미래적으로 보이는 가상 공간에 캐릭터들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사건이 일어나고, 자שה 들어 다보면 묘하게 생동감 있는 화면이 이어진다. 이렇듯 리움미술관의 블랙박스 전시장에 들어가면 우선 결이 비슷한 영상들이 4개의 스크린을 수놓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이안 쉑(Ian Cheng) 작가의 '사절(Emissaries)' 3부작 시리즈다. 1984년생으로 아직 30대인 이안 쉑을 처음으로 세계 미술계에 알린 연작인데, 가상의 생태계에서 인공지능(AI)을 지닌 등장인물과 자연환경이 서로 교류하고 반응하면서 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라이브 시뮬레이션' 형식의 작품이다.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원히 플레이되는 비디오게임' 같은 것으로, 스토리의 중심축인 '사절'이 임무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새 '판'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 작품은 끝나지 않는다. 사실상 혼자 알아서 무한 작동하는 불사신 같은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인지과학과 미술을 전공한 이안 쉑은 '사절' 시리즈 1부를 2015년에 내놓은 데 이어 에피소드를 달리해가며 2017년까지 3부작을 완성했고 AI로 움직이는 디지털 유기체를 미술계에 작품으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원래는 별다른 스토리가 없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는데,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펼치도록 만들기 위



1 리움미술관 블랙박스에서 지난 3월 2일 막을 올린 〈이안 쉑: 세계건설〉展 전시장 일구.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을 활용해 구축하는 가상 생태계 작업으로 젊은 경력에도 동시대 미술계의 선구적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안 쉑(Ian Cheng)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주요 작품 5점이 소개됐다. 국내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아트스펙트럼2022〉와 더불어 7월 3일까지. 2 리움미술관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이안 쉑. @Kim Je-Won 3 이안 쉑, '사절, 신들의 풍요에 거대영상 스릴, 2015, 라이브 시뮬레이션: 스토리, 무한 길이, 사운드, © 이안 쉑, 글래스톤 갤러리, 팔리 코리아스 런던, 스탠드(오슬로) 제6 4 이안 쉑, '사절, 완벽을 향해 분' 5 이안 쉑, '사절, 스스로를 잃는다' 6 이안 쉑, '사절, 스스로를 잃는다' 7 이안 쉑, '사절, 스스로를 잃는다' 8 이안 쉑, '사절, 스스로를 잃는다' 9 이안 쉑, '사절, 스스로를 잃는다' 10 이안 쉑, 'BOB 이후의 삶: 찰리스 연구(영상 스릴, 2021), 라이브 에-메이션, 컬러, 사운드, 48분. © 이안 쉑, 글래스톤 갤러리, 팔리 코리아스 런던 제6, 공동 제작 지원: 더 세트(뉴욕), 루마 재단, 라이트 아트 스페이스(베를린), 인터랙티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움미술관(서울) 제작 지원. 11, 12 BOB 이후의 삶' 영상을 감상한 뒤 영랑에서 관람 속도를 조절하며 작품 캐릭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능을 담은 '월드맵' 모드를 경험해볼 수 있다. \* 2, 3, 5, 6, 10번 이미지 제6, 리움미술관, 1, 4, 7~9, 11, 12번 이미지 Photo by SY Ko

해, 그리고 메시지 전달을 위한 유인 장치로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를 꾀한다. 전시명처럼 그만의 '세계건설' 중이다.

**#웹 3.0 세상의 디지털 생명체 AI와 게임 엔진의 '칩'** '사절' 3부작과 더불어 이번 리움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인 'BOB'(2018~2019)은 이안 쉑의 철학적 사유와 기술적 시도를 관객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흥미롭게 반영한 작품이다. 뱀을 닮은 인공 생명체인 BOB(뱀)은 영어로 '신념'이 담긴 가방(Bag of Beliefs)이라는 말의 알파벳 첫 글자인 B, O, B를 따서 만든 줄임말로, 우리 자신이 여러 신념으로 뭉친 복잡다단한 존재라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하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인간처럼 BOB도 서로 다른 욕구와 신념을 지닌 여러 개의 AI로 이뤄져 있다. 작지만 역동적인 이 디지털 생명체 속에서도 각각의 AI가 저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을 한다. 관객이 'BOB Shrine'이라는 앱을 내려받아 접속하면 '영혼의 양식을 골라 먹어처럼 줄 수 있고, 이는 BOB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부모와 친구, 주변인들이 한 인간의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신념이 많이 쌓이는 식으로 악역향을 미치게 되면 심지어 BOB가 죽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한다(물론 '불사신' 게임 같은 속성을 지녔으므로 부활한다). 단순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나름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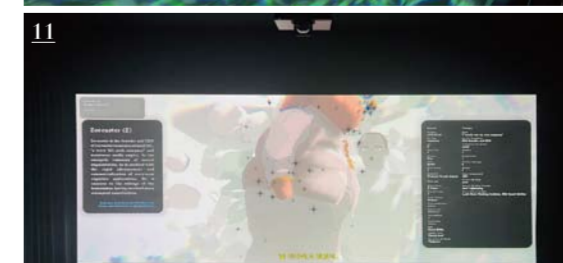
이안 쉑은 이후 내러티브를 한층 강화한 작품을 신작으로 내놓는다. 'BOB 이후의 삶: 찰리스 연구(Life After BOB: The Chalice Study)'(2021)라는 48분짜리 증편 애니메이션이다. 뉴욕의 더 세트(The Shed), 프랑스 아를에 있는 루마 재단(LUMA Foundation), 베를린의 라이트 아트 스페이스(LAS)가 공동 커미션 작품으로 의뢰했고, 리움미술관까지 지원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신경공학자 아버지의 프로젝트로 뇌에 인공지능 BOB을 이식한 소녀 찰리스(Chalice)로 인생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AI와 공존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성장기를 담았다. 2074년 시점에서 열 살인 찰리스에게 BOB은 '최적의 인생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리도록 이끈다. 48분의 시간이 속도감 있게 잘 흘러가는 이 작품에서는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듯이 인간의 신경계로 연결되는 '웨이비버스'라든지 인터넷 방송처럼 웨이비버스상에서 이뤄지는 방송인 '웨이비캐스팅' 같은 작가가 만들어낸 개념이 나와 앞으로 펼쳐질 웹 4.0, 웹 5.0 시대를 둘러싼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이 작품을 상

영하는 무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옆 공간에는 '월드워킹'이라는 모드를 체험할 수 있는 상영관이 하나 있는데, 현장에서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작품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할 수 있다. 멈춤, 재생 기능으로 관람 속도를 조절하고, 캐릭터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MBTI 정보까지 나온다). 전시장이라는 공간적 제약, 그리고 한 번에 1명만 접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원 제약도 있지만 약간의 개념이 가능한 셈이다.

**#관람객이 개입하는 쌍방향 콘텐츠 시대를 꿈꾸다** 'BOB 이후의 삶'을 비롯해 이안 쉑의 디지털 생명체 같은 작품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단정하기 힘들다. 게임 메커니즘이나 '마블 유니버스'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세계관에 노출되어왔다면 친밀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도대체 뭐지?' 하는 어리둥절한 반응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형식도, 내용도 '신선하다'는 점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BOB 이후의 삶'의 경우, 실제로 게임 엔진으로 이처럼 어느 정도 길고 내러티브까지 갖춘 작품을 내놓은 건 이안 쉑이 처음이다. 팬데믹 기간과 맞물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영화계의 제작비와 비교해 월등히 저렴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작업을 마쳤다고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이안 쉑 작가는 어째서 예술 작품을 하는 데 게임 엔진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냐는 질문에 "쉬운 방식으로 일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고 미소 지으며 "(그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는 것 자체가 힘든 제작 과정을 버텨낼 힘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디어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만나 '타이밍도 좋았다'고 자랑했다. 게임 엔진을 활용한 작품 이후에 메타버스, NF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른 플랫폼에서 변형되고 새롭게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미래에는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미디어 플랫폼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분화되고 확산되는 진정한 트랜스미디어 단계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관객이 참여하는 '월드워킹' 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쯤 웹으로 설명을 띄우고, 멈춤, 재생을 조절하는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캐릭터들 안에 AI를 심어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안 쉑은 설명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 "인공지능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다면, 인간인 내가 할 일이 남아 있기는 할까?" 'BOB 이후의 삶'에서 주인공 찰리스가 던지는 이 질문을 위시해, 이안 쉑의 철학적 탐구는 계속 곱씹어볼 만한 면이 있다. 심리학을 가까이 접해온 그는 모든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지인의 영향력 아래 형성된 '인생 각본'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론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인이 된 어느 시점에서 '유지할 것과 버릴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아 성찰을 하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다고 한다. SF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가 어떤 차기작을 내놓을지 자못 기대된다. 글 **고성연**





저명한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사진이 '진실의 몫을 담고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그 진실이란 사진에 실재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이나 거기에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를 밝혀주는 법인데, 이런 진실의 몫이 지닌 성격과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예술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줄지어 열리고 있다. 사진계 거장의 면모를 만끽할 수 있는 사울 레이터, 어윈 올라프 등의 전시가 요즘 큰 인기와 관심을 누렸는데, 저마다 다른 결로 올 상반기를 수놓고 있는 또 다른 전시 콘텐츠를 소개한다.



**#〈알렉스 프래거, 빅 웨스트(Big West)〉롯데뮤지엄**  
작가의 배경을 잘 모르더라도 알렉스 프래거(Alex Prager)의 작품을 보면 다분히 미국적인 감성이 느껴진다. 특히 화려한 색감과 등장인물들의 과장된 몸짓, 섬세한 표정, 인상적인 사선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장면을 보는 듯한데, 일상의 풍경이 등장할 때조차 익숙한 듯 낯선 긴장감과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묘한 신비감이 시려 있다. 실제로 작가는 할리우드 영화의 본산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는데, 2001년 미국적인 사진 미학의 대가로 꼽히는 윌리엄 아들스틴의 전사를 접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독학으로 사진 작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한다. 세세한 연출이 뒷받침된 '서부 감성'이 훨씬 느껴지는 친근하면서도 신비한 미장센의 사진 연작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주목받은 그녀는 2010년 단편영화 〈절망(Despair)〉을 내놓으며 영화 작업의 포문을 연다. 이는 복잡다단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자마다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알렉스 프래거의 사진 작업을 보고는 배후의 '스토리 전개'를 묻는 팬들이 워낙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장르의 확장이었다. 또 브래드 피트와 게리 올드만이 출연한 13부작 영화 〈여차 오브 이블〉의 제작을 맡아 2012년 에미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알렉스 프래거를 국내에 소개하는 첫 대규모 전시인 롯데뮤지엄 개인전은 작가의 초기작부터 초현실주의 스타일이 녹아든 시리즈, 그리고 주요 영상 작업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명 〈알렉스 프래거, 빅 웨스트(Big West)〉 전시 기간 2022년 6월 6일까지 홈페이지 [www.lottemuseum.com](http://www.lottemuseum.com)

**1** 애플로즈(Appleoz)(2016). 작품을 보는 관람객을 마치 박수를 받는 주인공처럼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반전시킨 1번 3짜리 영상 작품. 끊임이 반복되는 루프 영상으로 2017년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상영됐다. **2** 자선이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감성을 찬찬히 훑어본 듯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주목받은 알렉스 프래거는 영상 분야에서도 무릎을 탁대고 있는 작가다. 1, 2 이미지 Photo by SY Ko **3** Welcome Home(2019) 2022 Alex Prager Courtesy, Alex Prager Studio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이미지 제공 롯데뮤지엄



**#〈아워세트: 아워레이보 X 권오상〉아트스페이스광교**

알렉스 프래거의 사진과 영상 작품이 영화 세트장을 연상시킨다면, 지난 2월 말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시작한 〈아워세트: 아워레이보 X 권오상〉展은 이에 세트 형식으로 구성된 판을 밝혔다. 사진과 조각, 공간이 만난 9개의 세트가 하나의 커다란 촬영 세트장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전시다. '사진 조각'이라는 자신만의 작업 방식으로 잘 알려진 권오상 작가와 미술을 바탕으로 한 감각적인 공간 연출로 부각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OURLABOUR)의 협업으로 빛어낸 티라 우리의 세트(Our Set)라는 표현을 전시 제목으로 붙였다. 미술계에서 통상적으로 공간 연출은 커튼 뒤에서 박수를 받는 경향이 짙는데, 이처럼 아워레이보를 독자적인 브랜드로 전면에 내세워 권오상의 작업과 공간이 만나려는 전시장 자체를 또 다른 예술 작품처럼 선보인 시도가 돋보인다. 아워레이보는 다양한 창작자가 모인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리움미술관의 재개관을 장식한 기획전 〈안간, 일곱 개의 질문〉,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현대차 시리즈 2021년 진사(문경원 & 전준호 작가) 등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다. 이번 협업 전시에서는 사진을 콜라주 기법으로 이어 붙여 만든 가벼운 조각 작업인 데오도란트 타입 시리즈로 무늬를 나타낸 이래 꾸준히 확장을 꾀하고 있는 권오상 작가의 작품 35점이 9개의 세트에 나눠 선보이는데, 각각의 세트마다 아워레이보의 공간 연출이 더해졌다. 예컨대 권 작가의 대표적인 데오도란트 작품들이 아워레이보의 눈길을 잡아끄는 조명 연출과 만나 마치 패션쇼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식이다. 무료 관람.

전시명 〈아워세트: 아워레이보 X 권오상〉 전시 기간 2022년 5월 22일까지 홈페이지 <http://suma.swwon.go.kr>

**1** 사진과 조각, 공간 연출이 어우러져 하나의 커다란 촬영 세트장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아워세트: 아워레이보 X 권오상〉展의 세트 2 전시 모습. 권오상의 대표적인 데오도란트 타입 작품이 전통적인 조각상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아워레이보의 화려한 조명 연출 방식을 만나 패션쇼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2** 세트 9 설치 전경. 자차-무 반 위에 이미지가 담긴 나무편을 쌓아 올리는 콜라주 같은 형태로 완성하는 '릴리프(Relief)' 연작과 독특한 공간 연출이 만난 세트 연작을 선보였다. 서로 연결성이 없는 이미지를 중첩해 평면으로 완성된 작품은 아워레이보의 연출과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낸다. **3** 슈파-블 본드 작품 '더 스킨프러 4'(2005~2015)를 재대기 아노리 검은색 카펫 위에 선보여 '시뮬'로 인스타도록 유도한 세트 1 모습.



공간 연출이 돋보이는 아워레이보 X 권오상 전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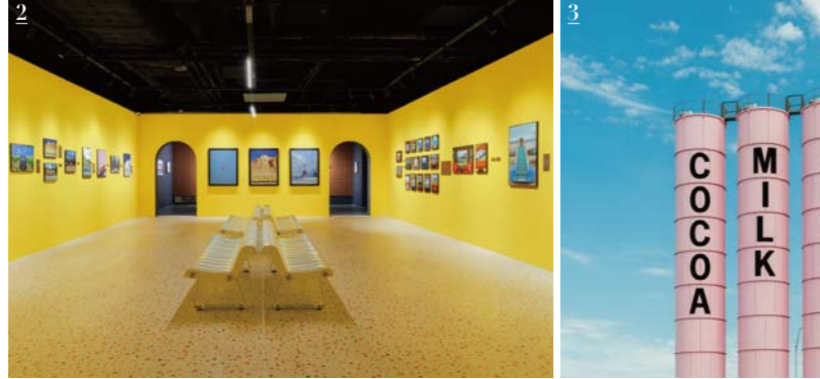


**#〈우연히 웨스 앤더슨: 어디에 있든, 영감은 당신 눈앞에 있다〉그라운드시소 성수**

요즘 들어 사진뿐이 아니라 전시 풍경에서 부쩍 더 눈에 띄는 듯한 현상에 대해 누군가는 하늘같이 자유롭게 열지 않아서까 아닐까?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각적 대리 만족을 선사한다는 얘기다. 오감으로 만끽하는 여행의 미학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자유로웠던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한 것 같다. 그라운드시소 성수에서 진행 중인 사진전 〈우연히 웨스 앤더슨: 어디에 있든, 영감은 당신 눈앞에 있다〉는 바로 우리의 여행 감성을 한껏 돋우는 전시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Accidentally Wes Anderson, AWA)'은 미국 브루클린에서 알파와 이판다 코발 부부가 여행 계획을 짜면서 결성된 아티스트 그룹이자 거기에서 확장된 일종의 프로젝트 명칭인데, 이들이 독특한 영상 미학과 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팬덤을 거느린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에 등장할 법한 장소를 포착해 동명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시작된다. 자신들이 찍은 사진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팔로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들을 피드며 올리며 '모험'이라고 칭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하게 된 것. 이번 전시는 동화 같은 파스텔 색조, 현실에 있지만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장소, 우트 어린 손자의 포착 등 웨스 앤더슨 하면 떠오르는 감성을 지닌 이미지 3백여 점을 '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107지 키워드로 펼쳐놓았는데, 그 밑으로 세계는 넓고 기쁨 데는 많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다. 글 **고성연**

전시명 〈우연히 웨스 앤더슨: 어디에 있든, 영감은 당신 눈앞에 있다〉 전시 기간 2022년 6월 6일까지 홈페이지 [groundseesaw.co.kr](http://groundseesaw.co.kr)

**1**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없는 우리네 현실 속에서 그로운 '여행' 감성을 복돋는 '우연히 웨스 앤더슨: 어디에 있든, 영감은 당신 눈앞에 있다'展의 전시 모습. **2** 환상적인 영상 미학을 지닌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장면 같은 사진 작품을 전 세계에서 모아 5평 평 규모의 전시장에서 전시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열린 참여를 지향하는 큐레이팅 방식에 맞춰 이번 전시에도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색신이 있다. **3** 'Accidentally Wes Anderson(AWA)', 'Malley's Chocolates', 미국 오하이오주 콜리버랜드 외곽의 '말리스 초콜릿 공장' 모습.



이전 전시 모습





벨크로 디테일의 워터 포켓 베스트  
2백41만5천원, 그레이 체크 U 록 재킷  
3백67만5천원, 화이트 티셔츠 가격  
미정, 그레이 체크 포멀 쇼츠 1백15만원,  
블랙 오버 더 니 부츠 가격 미정,  
로그 아이링 가격 미정 모두 **자정시**.

베이지 개버딘 슬리브리스 트랜치코트  
4백15만원, 화이트 슬리브리스 롱  
가죽 미정, 블랙 테일러드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앵클 스트랩 부츠  
가격 미정, 노즈 컷프 가죽 미정,  
림 컷프 가죽 미정 모두 **바버리**.

# The Portfolio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반전.  
꼭 간직해야 할 2022 S/S 남성복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그린 체크 코트, 레더 트랙  
블루종, 나일론 소재의 트랙  
수트 팬츠, 실버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울 소재의 블랙 재킷 5백30만원대,  
실크 소재의 브라운 블루종  
4백40만원대, 울 소재의 블랙 팬츠  
1백만원대, 카프 스킨 소재의 샌들  
1백1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그레이 체크 더블 재킷 가격 미정,  
베스트 가격 미정, 화이트 셔츠  
1백36만원, 그레이 체크 쇼츠  
1백29만원, 핑크 GG 로고 레깅스  
가격 미정, 라이온 GG 모노그램  
스니커즈 1백33만원 모두 구매.



오렌지 레더 이너라 가격 미정,  
아니로 입은 라이트 모헤어 스웨터  
1백10만원, 블랙 레더 쇼츠  
가격 미정, 화이트 & 네온 그린  
스니커즈 96만원 모두 구매.





그레이 싱글 재킷, 브라운 카디건,  
자오메트릭 패턴 슬리브리스 탑,  
네이버 팬츠, 이너 쇼츠,  
브라운 버클 샌들, 블랙 레더 벨트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메탈 데님 트윌 셔츠, 팬츠,  
큐빅 지르코니아 스텔링 실버 네크리스,  
에우렐 마감 자외선 스텔링 실버 링,  
청카한 굵이 톨보이는 타이머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레이 마준호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Michał Borzuchowski,  
Nicholas Bondarenko, José Angel,  
Artur Kharchenko, Vladislav Shapoval,  
Yegor Kukut, Jack Bood, Gendler Nikita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구찌 02-3452-1921  
프라다 02-3218-5331  
자캄시 02-546-2790  
루이 비통 02-3432-1854  
버버리 080-700-8800  
로에베 02-6905-3470





# Pure Gold

따뜻하고 온화한 광채로 일상의 순간을 밝혀주는 순수한 옐로 골드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소피드 아이스 큐브 퓨어 벵글** 큐브 형태의 직선과 브레이슬릿의 곡선이 대비를 이루며 분명한 개성을 드러내는 모던 주얼리로 클래식 스타일부터 포말한 스타일까지 두루 착용하기 좋다. 고정 거대로 구입하는 패이 메인드 골드로 제작했다. 6백39만원, 문의 02-6905-3390

**샤넬 화이트인 주얼리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하우스를 상징하는 쉐링 모티브를 적용해 우아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타파니 타파니 노트 컬렉션** 뉴욕의 간죽물에서 영감을 얻은 유연하고 구조적인 형태가 돋보이는 주얼리로 매듭 디테일과 크로스 보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더블 렙 디자인이 하나의 아이콘이 된다. 반지와 브레이슬릿을 레이아웃하면 더욱 풍성하게 주얼리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링 3백만원대, 문의 02-6250-8620

**부셀라티 미크리 브레이슬릿** 실크처럼 한 줄 한 줄 손으로 새기는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특유의 리카토와 세공 기술을 입혀 간결하면서도 우아함의 미학을 드러낸다. 4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쇼메 비아리엔느 링**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꿀벌을 모티브로 한 쇼메의 대표적인 주얼리 컬렉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허니콤 모티브의 구조적인 직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티브의 흐름에서 섬세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1백13만원, 문의 02-3479-1597

**프레드 샹스 인피니 랩솔 컬렉션 링 by 아델리스 미켈스** 행운과 열정, 우한함 등 낙천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숫자 8의 형태를 따는 고유한 더블 루프 모티브가 특징인 샹스 인피니 컬렉션. 디자이너 아델리스 미켈스의 타격을 거쳐 대담한 강감으로 재탄생했다. 9백74만원, 문의 02-514-3721 에디터 **이주이**

아노니무스 배너

# Lady Masterpiece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완벽한 기술력과 미학을 겸비한 수작으로 꼽히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의 뉴 컬렉션.



##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

1952년 첫선을 보이며 이름을 알린 컨스텔레이션 위치는 수많은 시계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여성 위치로서는 오메가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를 장착한 모델로도 유명하다. 특히 유려한 곡선으로 이뤄진 감각적인 디자인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력을 계승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항자성을 갖춘 타임피스로 오메가를 대표하는 역할로 손꼽힌다. 마스터크로노미터 인증은 기계식 위치를 판단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다. 스위스 연방계측학회인 METAS가 정의한 여덟 가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만으로도 시계의 성능과 정확도가 입증되는 셈이다. 뉴 모델 역시 항자성 기술의 혁명으로 불리는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을 탑재했다. 자성이나 충격, 온도 변화에 강한 실리컨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프리 스프링 밸런스 덕에 1만5천 가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갖추었다. 이 완벽에 가까운 무브먼트는 수심 50m 방수 성능과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도 지원한다. 모든 모델은 5년간의 품질보증이 적용되며,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카드를 함께 제공해 무브먼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 유려한 라인을 이루는 감각적인 디자인

반짝이는 별에서 영감을 얻은 이 아름다운 이름의 시계는 1982년 선보인 컨스텔레이션 모델의 디자인을 따르며 클래식한 품격을 계승한다. 원형 다이얼과 반달 모양의 케이스 상단, 하단 패시, 그리고 케이스 전면을 장식하는 4개의 클러와 스타 장식으로 상징적인 디자인적 특징을 이어간다. 세대를 거듭해 5세대 버전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은 정교하고 섬세한 마감 기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해 디자인적인 변화를 감행했다. 날렵하게 다듬은 아이코닉한 클러와 베벨 가공한 케이스로 더욱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고, 빅 다이얼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해 여성의 가벼운 손목을 강조하기에 이상적인 지름 36mm 크기의 케이스로 선보인다. 한눈에 보기에도 균형미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다이얼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드러운 빛깔의 태양광 패턴을 다이얼에 적용해 오묘한 매력을 극대화한다. 인덱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6시 방향에는 크로노미터에서 가장 실용적인 기능으로 꼽히는 날짜창을 올려 담백하게 마무리했다. 다이아몬드 인덱스부터 슬림한 스키텔레톤 나뭇잎 모양의 핸즈, 그리고 상징적인 스타 장식까지 시계 위 모든 요소가 각 케이스 클러와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균형미를 뽐낸다. 기

존 쿼츠 모델에는 주로 브레이슬릿을 조합해 선보였다면, 칼리버 8800을 장착한 36mm 세 가지 모델에는 다이얼 클러와 톤온톤 배색을 이루는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 컬러 구성으로는 고풍적인 버건디와 클래식한 오라를 풍기는 브라운, 그리고 가장 동시대적인 블루 버전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오메가 특유의 감각적인 컬러 조합은 소장 가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스타일에 맞춰 시계를 착용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버건디 모델은 36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PDV 버건디 다이얼을 조합해 고풍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모노 랭 브레이슬릿에 다이얼과 같은 컬러의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 브라운 버전은 세드나 골드를 조합해 파스하고 차분한 감성을 전한다. 동시대적인 감성을 이루는 블루 모델은 스틸에 18K 옐로 골드를 더해 세 가지 소재가 밸런스를 이루며 이지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모든 케이스 뒷면에는 투명함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해 가장 정확하고 견고한 칼리버 8800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로터에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새겨 혁신적인 기술력을 입증한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이주이**



1 36mm 사이즈로 선보이는 뉴 컨스텔레이션 모델. 브라운 모델 1천7백60만원, 블루 버전 1천7백60만원, 버건디 버전 1천4백30만원. 2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의 견고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태양광 패턴과 다이아몬드 인덱스, 스키텔레톤 나뭇잎 모양의 핸즈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원형 다이얼.

● sponsored by OMEGA



# Bag Boys

활동적인 도시 남자를 위한 뉴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킹 카프 리더 소재에 수공으로 세이딩 효과를 준 피카부 아이씨유 백 미디엄 사이즈. 탁구채를 넣을 포켓과 탁구공 3개를 넣을 수 있는 지퍼 포켓 디테일이 유쾌하고 실용적이다. 8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호보 스타일이 지닌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 하면서도 아이코닉한 X자 해리스 디테일을 더해 독특한 하드웨어적 특징을 이어나간다. 자석으로 여닫는 뒷면의 이중 달개로 실용적인 면모까지 지닌 블랙 송이 가죽 카브 백 2백23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허우스의 아이코닉한 카풀 트래블 백을 작은 사이즈로 재해석 해 선보이는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데일리 백이다. 그레이 에어로그림 카우하이드 가죽으로 제작한 스틱 카풀 XS 백 3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백 밑면에 스퀘어 트보드 모티프를 더한 블랙 스케이프 백. 토고 카프 스카피 카우하이드, 스무프트 카프 스카피를 조합 했다. 1천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생동감 넘치는 비비드 블루 컬러로 선보이는 브이 로고 시그니처 크로스 보디 백. 탈착 가능한 스트랩과 실용적인 플 핸드를 갖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1백95만원 **빌버디노 가리버니**. 문의 02-2051-4653. 골드 톤 디올 오블리 크 자카드 소재로 제작했다. 새들 플럼에 실용적인 사이트 수납공간을 갖추며 톤온톤 그레이 송이 가죽으로 디테일을 살린 미니 보스턴백 형태의 원고 26 백 가격 미정 **디올 덴**.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이주이**

어사티브 백아트

# edge of elegance

주얼리 매종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실루엣과 구조적인 디자인,  
브랜드 헤리티지가 돋보이는  
버클 디테일의 '두블르 쎬 드 까르띠에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ponsored by CARTIER

(위부터) 피우더 핑크 컬러의 송이 가죽과 골드 프레임의 핑크 에-클렛 피-싱으로 완성한 잠금장치 버클이 우아한 매력을 자아내는 높이 170mm, 폭 130mm의 나노 사이즈 슬더백 2백만원대, 매력적인 체리 레드 컬러의 송이 가죽에 같은 컬러의 에-클렛 피-싱으로 완성한 잠금장치 버클을 매치해 모던하고 심플하면서도 엘리전트한 무드를 주는 슬더 킷 크로스 백 2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차례대로) **오르메 레 브뤼네** 오렌지 과수원에서 맞이하는 아침을 향으로 표현했다. 레몬과 만다린, 진저가 어우러진 특 타질 듯 싱그러움과 씩씩한 시트러스 노트를 중심으로 세이지와 재스민, 투베로즈가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전한다. 여기에 마티아 샌들우드를 조미료처럼 더해 한층 감미롭고 신뜻한 진함을 느낄 수 있다. 50ml 21만원, 문의 02-3446-5724 **아쿠아 디 파르마 콜로니아 클루스** 완벽한 행락의 순간을 향으로 표현한 만큼 낙천적인 기운을 자랐다. 네롤리 중심의 신선한 그린 노트에 스파이시한 텍스처의 민트가 어우러져 깨끗하고 깔끔한 진함을 남긴다. 무겁지 않은 점잖은 향기로 남녀 모두에게 추천한다. 50ml 14만2천원, 문의 02-6905-3568 **디토리오 로즈 오드 파퓸** 이름에서 연상되듯 정미가 메인으로 활약해 풍부하고 사원스러운 향을 이룬다. 디아스코 로즈와 샌들우리아 로즈를 네 가지 서로 다른 추출법을 통해 담았고, 아티초크와 라지 열매, 그리고 달콤한 캐리비안 아이유리저 한층 진하고 풍부한 정미 향을 줄일 수 있다. 75ml 23만5천원, 문의 02-3479-6049 **메모 파리 귀호 노마드 오리엔탈 레더 오드 파퓸** 오랜 사랑의 황금빛 모래와 태양이 내려찍는 일하저스택의 봉우리에서 영감을 받은 향기. 라벤더와 파슬리로 이어지는 우아한 향조에 사나운과 레더 아코드의 육감적인 향을 더해 중성적인 향기를 완성했다. 바닐라가 절정에 다다른 향을 포근하게 담아 향의 어운을 감미롭고 은밀하게 지속시킨다. 75ml 31만원, 문의 02-3449-5303 **펜할리곤스 아서 용이 내뿜는 타오르는 불길 같은 매혹적인 향을 담았다.** 발삼, 무와 인센스 추출물, 라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직한 우디 향조에 자몽과 클라리 세이지가 사뭇한 바이브를 연출하고 바닐라와 앰브레트, 통가 빈이 선수열한 어운을 남기는 매혹적인 향기. 75ml 37만원, 문의 080-363-5454 **버버리 윈저 토닉** 영국 왕실의 공식 차투이 있는 윈저의 평온하고 목가적인 호숫가에서 영감을 받았다. 네롤리와 샴나무, 그린 만다린이 어우러진 싱그러움 그린 노트가 카다멈과 민나 한층 생기 넘치는 바이브를 연출하고, 이어지는 머스크가 은은하고 차분한 진함을 남겨 여운이 오래도록 감돈다. 100ml 32만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아쥬이**

# i see you

세련된 실루엣과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파카부의 현대적이고 미학적인 변신,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ensual Spring

이른 봄, 싱그러우면서도 농밀함을 지닌 남자의 향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니스프리 매사현

(왼쪽부터)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부드러운 송이자기족 소재로 양쪽 트윈스트 짐금장치가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낸다. 견고한 파티션으로 분리된 2개의 수납공간을 갖추었으며, 핸들로 손에 들거나 탈착 및 길이 조절 가능한 슬더 스트랩을 매치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파카부 아이씨유 이스트-웨스트 백 5백만원대, 2022 S/S 여성 컬렉션에서 선보인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페즈의 작품이 그려진 파카부 아이씨유 미디어백, 여성성, 다양성, 포용성 등 관습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비전을 담았다. 조형적인 드로잉은 메종의 수작업으로 송이 자기족, 스웨이드를 오랜 시간에 걸쳐 재단 및 재봉하는 인테이 기법을 통해 완성했으며, 아이코닉한 백에 재현해 독창적인 자유로움과 강렬하고 대담한 여성에게 찬사를 보낸다. 8백만원대, 모두 렌디, 에디터 **성정민**



# heroes for Hair

건조하고 갈라지고 빠지기까지. 두피와 모발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들은 항상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건강하고 풍성한 헤어를 위한 스페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케빈 머피 영. 아가인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보습과 영양을 주는 헤어 오일인 이모르탈 추출물이 모발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샴푸 후 물기를 제거하고 모발에 충분히 도포하면 탄력과 광택을 되찾아 부드러운 모발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0ml 4만7천원. 문의 02-515-0960

르네쥬레르 투뉴시아 플렌리쉬 샴푸 스킨을 내추럴 허발루르산을 함유한 샴푸로 깊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약해진 모발과 두피에 강력한 힘을 선사한다. 실리코스를 함유하지 않은 포뮬러로 샴푸 후 잔여감이 없이 섹스함과 부드러운 남긴다. 200ml 2만6천원. 문의 1899-4802

사슬리 안타-앤드라프 큐어 과도한 피자와 박테리아, 각종 스트레스와 미세 먼지 등에서 비롯된 두피의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세럼. 두피와 모발에 도포하면 자극받은 두피를 진정시켜서 노폐물을 정화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바꿔준다. 200ml 1만4천원. 문의 080-549-0216

아베다 뉴트리플레니쉬™ 트리트먼트 마스크 라이트 모이스터 96%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무선키친 샴푸로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한 비가시 증 제형이다. 건조한 모발을 위한 유가농 식염수 오일, 코코넛 오일, 망고 씨 버터로 이루어진 슈퍼푸드 콤플렉스가 모발에 72시간 동안 건강하고 풍부한 영양감과 보습감을 지속적으로 선사한다. 150ml 5만4천원. 문의 02-3440-2805

로아비 데일리 리프레이시 안타-헤어 로스 샴푸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모발에 수분을 남기고 두피에 있는 불필요한 유분만 깔끔히 씻어낸다. 265ml 3만8천원. 문의 1644-4430

오리베 by 라베르바 시크니저 컨디셔너 고보습 분자가 건조하고 상한 머릿결을 즉각적으로 되살리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컨디셔너. 건조한 모발에 광택과 생기를 되찾아주며 영양을 방출해 하루 종일 빛나는 머릿결을 유지해준다. 200ml 5만2천원. 문의 02-2056-1221

모로칸오일 올인원 리본인 컨디셔너 비르고 씻어내지 않는 리본인 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수분감이 풍부한 알기 포뮬러가 모발에 충분한 보습감을 선사한다. 아르간오일™ 오일 성분 이 갈라진 큐티클을 채우고 손상된 모발 회복에 도움을 준다. 160ml 3만8천원. 문의 1666-5125 에디터 상영민

# dear my Pet

소중한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게 선물할 특별한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급스럽고 튼튼한 오크나무 소재의 반려동물 가방인 1백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셋아웃이 없고 후리가만 하면 반려동물의 털을 리프레이시해주는 드라이 샴푸 150ml 4만5천원대 산타마리아 노벨라. 문의 02-546-1612. 자연 유래 성분으로 반려동물의 어린 피부와 털을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보디 클렌저 500ml 5만원 이심. 문의 02-515-0812. 등에 모스카노 로고를 새긴 레더 소재의 재킷 74만원대 모스카노. 문의 02-3448-1340. 폴리에스테르 100%로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펫 캐리어 1백38만원 몽클레르. 문의 080-311-0000. 비비드한 블루 컬러에 패딩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폴도 도그 쿼터 블루 패딩 65만원 몽클레르. 문의 080-311-0000. 오크나무와 스틸로 이루어진 단단하고 튼튼한 길가치 침대 2백3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반려동물의 털과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과 윤기를 더하고 14가지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보습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펫 미스트 300ml 2만1천원 플로리스콜라겐. 문의 02-543-1225. 모스카노 로고 포인트의 반려견용 목걸이 37만원대 모스카노. 문의 02-3448-1340. 의류나 담요, 침구류 등에 붙은 반려동물의 털이나 보풀을 제거하는 패브릭 브러시 13cm 5만1천원 레데카 by 플로리스콜라겐. 문의 02-543-1225. 자기 소재로 안전하며 블랙 로고 포인트로 다양한 느낌을 주는 반려동물용 가방 12만원대 모스카노. 문의 02-3448-1340 에디터 상영민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EARRINGS AND NECKLACE IN 18K BEIGE GOLD, 18K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WHITE GOLD WITH A THIN LAYER OF RHODIUM PLATING FOR COLOR

CHANEL

FINE JEWELRY